



[동방박사 예물 봉헌]
6세기. 모자이크
산아폴리나레누오보성당
라베나 이탈리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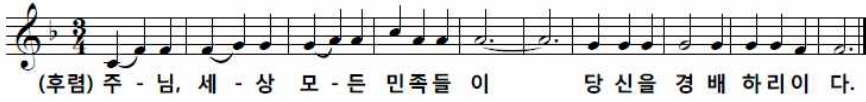
지도수녀: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h@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60, 1-6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제2독서] 에페 3,2.3 L. 5-6

[복음환호송] 마태 2,2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 [성가안내]
- 입당성가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 봉헌성가 [487] 동방의 세 박사
 - 성체성가 [110] 경사롭다
 - 파견성가 [100] 동방의 별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게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정선	김윤아 마리아
제임스 M. 한트	마가렛 한트
문종란 글라라	김미화 마리클레어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이재형, 차덕순	이영애 레지나
윤기성 모니카, 황현상	이영애 레지나
양윤희 루시아	이영애 레지나
김화자 소화 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숙 카타리나
생미사	
배인순 아가다	이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Kevin Kim	김미화 마리 클레어
엄기섭 안토니오, 김한숙 카타리나	익명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녜스	이지연 안나 레지나
민사현 베드로, 김혜진 율리아	민덕미 안젤라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1월 3일	김진섭 야고보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민완준 필립보	
1월 10일	박기웅 사도요한	이경자 율리안나	김미화 마리 클레어	이경자 율리안나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1.1 성모마리아 1.2 바실리오, 그레고리오
- 1.4 엘리사벳 시튼 1.5 신클레티카
- 1.17 안토니오 1.20 파비아노, 세바스티아노
- 1.21 아네스 1.24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1.26 티모테오, 티토 1.27 안젤라
- 1.28 토마스 아퀴나스 1.31 요한 보스코

미사 안내

-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토요일 4:00 am
일요일 8:00 am, 9:15 am (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 미사 :
월 ~ 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미사참석시 지킬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평화의 인사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였
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울뜨레야 !미동북부 2021년 Vitual 신련 교례회

- 일시 : 2021. 1.10. (일) 오후 7시
- 참가신청 : 본당 간사 또는 당일
직접 참가
Tel : 929 - 444 - 1411
- 참가 방법 : 핸드폰 또는 컴퓨터

● 참고 사항:

1월 10일 오후 6시부터 Zoom Meeting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간사님에게 신청하신분은 미리 들어오셔서
경품 참가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6시 45분까지 참가 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데폴로레스!

성경 통독을 합시다~

본당에서는 '성경통독표'를 통해 성경을
일 년 일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매일 와 닿은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성경말씀을 새기는 감동,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 2021년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세요.

한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껴보려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지금은 편리한 교통수단 덕분에 큰 힘이 안 들지만, 과거에는 도보로 고생고생 하면서 가야 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그 멀고 험한 여정을 거쳐 예수님을 만나는 세 명의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멀리 동방(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물로 바칩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로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제사 때 사용되는 향료인 유향은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징입니다.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로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우리를 위해 수난을 당하실 분임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하느님을 향한 열망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빛이신 그분만이 우리 내면의 어둠과 주변의 암흑을 몰아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안에서만 믿음과 희망, 사랑이 가득한 '나'로 성장하고 '우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바치면 좋겠습니다. 황금을 바치면서 돈, 명예,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임금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유향을 바치면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상처,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하느님으로 섬기기를 기원합니다. 몰약을 바치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 바람, 생각, 한 마디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받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과 교회가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인간에게는 '하느님처럼 되려는 욕심'(창세 3,5 참조), 곧 자신이 하느님의 피조물임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경향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신앙인은 이런 유혹을 거슬러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세상과 이웃, 나 자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변질될 위험이 큼니다. 하느님이 빠지면 신앙은 독선으로 흐르고, 정의를 폭력으로 변질되며, 아름다움은 천박해지고, 지식은 혐오스럽게 되기 쉽습니다.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태양이 비칠 때 영롱한 빛깔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빛 안에서만 그 의미와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 빛을 찾아가서 그 안에 머무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 축하합니다.

2020년 '일년일독 성경통독' 완독하심을 축하합니다.

김영빈(루시아)
이경자(율리안나)
유정옥(유스티나)
조남록(미카엘)
임금중(마가렛)

기도해주세요

♡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전마사자(카타리나) 김동희(헬레나)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테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봉운(바오로)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35 지하 성당 고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복음 묵상]

“진실한 예비자를 찾고 계시었다”

일상의 사사로움 안에서 당신은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여인이 물을 길으러 나갔다가
 우물가에 앉아계신 당신을 만났듯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그물을 손질하다가
 당신의 초대를 받은 어부들같이
 날마다 밤하늘에 뿌려진 무수한 별들을 보다가
 당신의 별을 보았습니다.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는데
 시돈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하셨고,
 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나병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 업적을 바라보며 겉모양에 빠진 사람,
 오만 가지를 연구하느라 바쁜 사람,
 저희처럼 당신을 모르면서 당신 업적을 바라보는 사람.....

당신 백성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부럽던 그들은
 성경에 정통하였지만 받은 талан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밭에 묻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적대감으로, 백성은 이상스런 기대감으로
 당신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인 척,
 진실하게 예배하는 이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예비자를 찾고 계시었습니까?
 저희를 부르시었습니까?
 동방에 솟아오른 별을 보고 서둘러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와 경배합니다.
 받으시옵소서.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릭온.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아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한반도 평화기원, 밤9시 주모경 바치기를 기억하세요^^